

# 카카오뱅크, 경북·인천·대전·경남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보증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8:40 |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8:40

출생 지원 기업, 창업 기업 등 '핀셋 지원'  
인천, 대전 지역에서는 최대 3%p 이자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경북, 인천, 대전, 경남 등 4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상생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창업 기업 등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이어간다.

카카오뱅크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개인사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4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뜻을 모았다.



[사진=카카오뱅크]

이번 협약으로 선보이는 지역 특화 상생 보증 상품은 ▲경북 저출생 극복&육아보육 지원 대출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 ▲대전 창업성장 대출 ▲경남 상생 대출 등 4가지다.

카카오뱅크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해 △경북 저출생 극복 & 육아보육 지원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가  
신혼 부부거나 출산을 앞둔 '출생 지원 기업' 또는  
사업장 내 유아시설이 설치된 요식업 및 교육 서  
비스업 등에 속하는 '육아보육 환경조성 기업'이  
며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에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 기관으로도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카카오뱅크가 특별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7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하는  
대전 창업성장 대출을 선보인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는 한  
도를 우대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

지난해에 이어 경남신용보증재단 협약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3억원을 특별 출연하  
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4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780점 이상(NICE 신용점수 기준)인 기업이다. 대출 한도는 최  
대 1억원까지다.

인천 제조업 이자지원 대출과 대전 창업성장 대출은 '카카오뱅크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  
는 이차보전 상품으로 인천 및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은 각각 최대 1.5%p, 3%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든 보증서대출은 100% 비대면으로 구현돼 보증재단 방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  
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재단 방문을 원하는 경우 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앱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peterbreak22@newspim.com](mailto: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